

『노자』의 ‘자연’과 춤미학과의 상관성 연구

-원(圓), 유(柔), 허(虛)의 춤을 중심으로 -

손인영*

| | |
|------------------------------|----------|
| I. 서론 | V. 결론 |
| II. 『노자』 자연(自然)의 의미 | 참고문헌 |
| III. 한국춤에 드러난 『노자』의 자연성 | Abstract |
| IV. 진주교방 굿거리춤에 드러난 『노자』의 자연성 | |

I. 서론

본 논문은 『노자』의 자연관과 한국춤의 미의식과의 상관성을 연구하여 사상이 춤의 미의식에 어떻게 표현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노자』의 자연주의 사상은 한국인의 기층문화에 깊이 뿌리내려있다. 문화예술 전반에 노자사상은 광범위하게 퍼져있으며 한국미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빠질 수 없는 단어가 바로 ‘자연미’이다. 자연미는 오랜 기간 한국인의 정신 속에 스며들어 있어 그것이 노자사상으로부터 연유되었는지조차 모를 정도이다.

『노자』의 자연관은 노자로부터 시작해 장자로 이어져서 한대를 거치면서 현학적으로 변화되었다. 노자사상은 이후 도가사상으로 정형화되었다. 도가사상은 신라로 넘어오면서 신선사상으로 변이되어 선사상으로 한국에 정착하게 된다. 도가사상이나 선사상의 뿌리는 노자로부터 시작되었으므로 ‘자연미’에 대한 연구는 『노자』로부터 그 근원을 찾아야 한다. 노자는 ‘자연주의자’라고 명명될 정도로 모든

* 경희대학교 강사, iyskorea@naver.com

사유의 핵심이 ‘자연’에 맞춰져 있다.

노자가 살던 시대는 춘추전국시대(春秋戰國時代)로 중국 역사 속에서 가장 큰 변화가 사회 전체에 걸쳐 일어났다. 전쟁과 압제가 횡횡하던 혼란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노자철학은 그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형성되었다. “그 시대는 한마디로 “도가 실현되지 않는 세상(天下無道)”이라 말할 수 있다. 노자는 천하무도(天下無道)한 이 세계 즉 자연을 거스르는 세계 체제 안에서는 더 이상 인간과 사회가 생명력을 가질 수 없다고 보았다.”¹⁾ 노자는 인간과 사회가 생명력을 가질 수 있는 세상 즉 도가 실현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자연’을 거론하게 된 것이다.

노자가 자연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인간세상처럼 억지로 법을 제정하거나 제도를 만들지 않아도 알아서 저절로 성장 변화하는 것을 보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자연이 생성화육하듯 인간세상도 자연처럼 왜 저절로 되어가지 않는지 그리고 온갖 형벌과 법제를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의문을 가졌고, 그 이치를 살펴보게 되었다. 그 이치를 살피는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무엇을 조장하는 것이 가장 자연과 어긋나는 이치이며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지고 저절로 되는 무위자연적인 순리의 법을 이해하게 되었다.

결국, 노자는 자연의 이치에 따른다면 인간도 자연과 마찬가지로 고통과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기에 자연을 외쳤다. 그러므로 『노자』에 있어 ‘자연’은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다. 자연미와 관련해서 한국에서는 노자보다도 선가와외의 연관성이 더 많다. 그것은 조선후기에 팽배했던 자연주의 사상의 근저가 신선사상인 선가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역사란 인접역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이고 조선후기의 혼란한 사회상황의 영향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역사발전의 과정이라고 본다.

자연미는 춤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되는 미적 범주이다. ‘자연미’는 인간이 닮고자 하는 ‘미’의 전형이며 한국춤의 중요한 핵심어이다. ‘자연’과 관련하여 한국에서

1) 배영길(2003). 老子『無』概念의 生命性: 건축공간개념의 실천적 적용. 서강대학교석사학위논문, p.7.

제출된 논문들은 수없이 많다. 자연과 관련한 무용론문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연과 『노자』를 직접적으로 연결시킨 논문은 드문 듯 보인다. 도가의 자연미와 춤을 연결시킨 최혜경(2010)의 논문이 있으나 엄밀히 말해 도가와 노자는 차이가 있다. 노자의 사상으로부터 도가가 탄생되었지만, 도가는 후대인들이 노자사상을 이어 받아 만든 것이기에 노자사상은 도가사상과의 섬세한 구분이 필요하다.

다양한 논문에서 자연미를 거론하고 있으나 ‘자연미’ 일반(김말복(2001), 신상미(1998), 김추자(2001))에 대한 논문들이 많으며 부분적으로 노자와 연결시켜 논의하기도 했지만, 단독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았다. 이런 점에서 노자의 자연관을 연구한 본 논문의 의의가 있다. 사상은 예술을 대변하고 미는 사상의 드러남이다. 한국의 미는 유불도 사상의 영향으로 이루어졌으며 종교나 무속과 관련한 무용쪽 연구는 많이 되어있다. 그러나 동양철학에 대한 사상적 탐구가 춤계에서는 미비한 실정이다. 서양철학과의 관련성 속에서 춤을 분석한 연구가 더 많은 이 시점에서 한국의 미적 특질을 정확하게 포착하기 위해 동양철학에 근거한 예술학적 탐구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노자사상에서 드러나는 자연의 의미를 자연의 순환성, 무위성, 자생성이란 특징에 주목해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 한국춤에서 『노자』 자연관이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는지를 원(圓)의 춤, 유(柔)의 춤, 허(虛)의 춤으로 나누어 검토한다. 한국춤의 미의식에서 원(圓), 유(柔), 허(虛)는 다양한 논문에서 연구되었다. 한국의 미는 곡선미²⁾라고 할 정도로 원의 춤은 한국인의 정신사 속에 내재되어 있어 전통춤 논의에서 수없이 거론되었다. 춤 호흡과 관련하여 한국춤의 부드러움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논의되었다. 허(虛)의 정신성과 연결하여 중년여성들의 정신치유로서 전통춤에 대한 연구가 요즈음 많이 되고 있다. 그러나 원(圓), 유(柔), 허(虛)의 춤이 노자사상과의 관련성 속에서 논의되지는 않았다.

본 논문은 한국춤에서 중요하게 취급되는 미의식인 원·유·허를 노자사상과의 관련성 속에서 논의를 진행하려고 한다. 논의 진행 과정에서 연구방법은 문헌

2) 정병호(2004), 『한국무용의 미학』(서울: 집문당), p.185.

연구와 더불어 직관적·관조적인 방법과 추상적·은유적인 방법에 의하여 고찰하도록 하겠다.³⁾ 논의의 끝에 『노자』자연관이 예인 김수악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리고 진주교방 곳거리춤에서 나타나는 원·유·허의 춤의 발현을 살펴 보도록 하겠다.

II. 『노자』 자연(自然)의 의미

자연(自然)이란 말은 『노자』에서 처음으로 보인다.⁴⁾ 비록 『노자』에 자연은 다섯

- 3) 이 논문의 연구 분석방법은 추상적이고 은유적인 수준을 벗어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는 동양철학이 가진 태생적 한계임과 동시에 노자사상 자체가 규정성을 부정하며 은유적이고 추상적이며 애매모호함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명확하고 논리적이며 분석적인 연구는 동양철학적 사유와 맞지 않는다. 본 논문의 분석방법은 직관적 관조의 방법과 추상적이며 은유적 언어로 논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동양적 사유를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며 분석적인 방식으로 연구한다는 것은 서구적 시각으로 동양을 연구하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에 대한 문제점은 여러 사람들에 의해 논의 되었다. 에드워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은 이미 알려진 철학적 반성이다. 서구의 관점에서 동양을 바라보는 시각, 즉 인류문화학적으로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타문화를 재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은 삶의 역사 속에 आरो새겨진 ‘마음속의 문양’에 의해 집단 무의식의 상태로 문화를 바라본다는 의미와 상통한다. 구디너프는 세상을 어떻게 지각하고 설명하느냐는 “마음속의 문양 또는 모델”이 좌우하고 사람의 “삶의 역사” 속에 “문화”가 있다고 하였다. 결국 한국 전통문화를 바라보는 관점 역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문양, 모델, 형식”에 의해 관조되어 진다고 할 수 있다(강신표(2007), 한국 전통문화문법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우실하 교수의 반론에 대한 재반론(2), 『문화와 사회』 3(2), p.132-158 참조). 기존 서구의 이성적이며 이분법적인 철학에 대하여 경험철학과 인지과학을 주창하면서 대두된 철학적 반성은 이미 전 세계적 추세이다. 김말복은 동서양철학을 정리하였는데, 레이코프(G. Lakoff)와 존슨(M. Johnson)은 이성이란 것이 의식적인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이라고 하였다. 이성은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은유적이고 상상적이며, 이성은 냉정하지 않으며 감정적으로 활동한다고 하였다. 이들이 기초하고 있는 인지과학은 마음의 신체화와 무의식적 사고 그리고 추상과 은유가 사고라고 하여 이성을 절대과학으로 생각하던 철학체계를 뒤집었다. 결국 추상적이고 은유적인 동양적 사고란 것이 미개적인 것이 아닌 고차원의 인지과학이란 것이다(김말복(2007), 몸과 춤, 『무용예술학연구』 20, pp.1-53 참조). 표의문자를 추구하는 동양인의 관조적 태도와 표음문자를 주창하는 서구인들의 분석적 방법의 접근은 서로 다른 관점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자는 동양철학적 시각인 관조적, 은유적, 추상적인 연구방법을 채택하였다.

번 등장하지만⁵⁾ 道와 더불어 『노자』의 핵심적인 개념이다. ‘자연’이라는 것은 원래 “어느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며, 존재를 나타내는 명사는 아니다. 그것은 자신을 의미하는 자(自)와 상태를 나타내는 접미사 연(然)으로 이루어지며, <자신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었다.”⁶⁾ 자연이라는 의미는 ‘신(God)’이라는 초월자와는 다르다.⁷⁾

전통적으로 중국에서는 ‘자연’보다는 ‘주재자로서의 천(天)⁸⁾의 개념인 ‘상제(上

-
- 4) “‘자연’이란 관념이 경전에 나타난 것은 『노자도덕경』이 최초이다. 『시경』 『좌전』 『논어』 등 비교적 초기의 경전에도 ‘자연’에 대한 설명은 보이지 않는다. 그 밖의 경전에서 ‘자연’이란 개념이 사용된 빈도를 살펴보면, 『맹자』에는 자연이란 용어가 전혀 나오지 않으며, 『목자』에는 1번, 『열자』에도 1번, 『순자』에는 2번, 『장자』에는 대략 6번, 『한비자』에는 8번, 『춘추좌전』에는 13번 나온다.” (박승현(2004). 노자의 “도법자연(道法自然)”에 대한 연구, 『한국중국학회』 49, p.569)
- 5) 노자의 자연개념은 『노자』 17장, 23장, 25장, 51장, 64장 등에서 나타난다.
- 6) 종교학 대사전 중 ‘자연’의 의미 <<http://terms.naver.com/entry.nhn?cid=282&docId=630772&categoryId=282>>
- 7) “천은 본래 지고한 신(God)이라기보다 상 왕조의 갑골문에 나타나는 산이나 강의 영령들과 같은 자연신이라면, 천의 최고 상징성은 자연 위계적 질서에서 차지하는 하늘의 중요성으로부터 끌어왔을 것이다.” (사라 알란(2001), 『공자와 노자 그들은 물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오만중 역(서울: 예문서원), p.50 참조)
- 8) “중국에서 천의 개념이 나온 것은 서주시대인 BC 11세기 이후이다. 부족사회에서 부족연맹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에서(하왕조로 되어갈 때) 왕의 조상신뿐만 아니라 여러 부족들의 조상신들을 아우르는 추상적 의미에서의 최고신으로 상제를 모셨다고 볼 수 있다. 은나라 말기(BC 1000년 정도)에 이르러 조상신과 상제를 하나로 보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상제는 비를 내리거나 기근을 내리기도 하고, 복을 주거나 화를 내리기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상제의 의지에 절대 복종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은나라 시대 때 왕은 풍년 등을 상제에게 곧바로 기원하지 않고 반드시 조상에게 기원했다고 한다. 그러면 조상이 상제에게 왕의 기원을 전달해 준다는 것이다. 은나라 시대에는 모든 일을 상제의 뜻에 따랐다. 그리고 상제의 뜻을 아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한 것이 귀복이다. 귀복이란 거북이 껍질을 불에 올려놓고, 그 갈라진 무늬를 보고 길흉을 판단하는 점법을 말한다. 서주시대 초기에 최고신에 대한 호칭으로 상제와 천이 함께 사용되었으나 점차 천이라는 호칭으로만 불려졌다. 천의 관념은 대체로 상제 관념을 계승하고 있다(주의 정권의 합리화를 위해 천명사상이 대두된다). 천명은 덕이 있는 자에게 내리며, 또한 어느 누구에게만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천명사상이다. 이로서 점차 점을 통해 천의 뜻을 알기보다는 민의를 통해 천의 뜻을 알려고 했다. 즉 민심이 곧 천심이라는 사상이 비롯된 것이다.” (김백현 편저(2006). 『중국철학사상사』(서울: 차이나하우스), pp.25~27 참조) 천명사상이 대두되기 전에 이미 “노자는 당시에 일반적으로 통용되었던 의지를 가진 천의 관념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나섰다. 이는 당시 천지를 진동시킬만한 위협스런 주장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帝)란 의미로 쓰였다. 중국의 하은주시대 초기에 천의 관념은 상제와 비슷한 초월자에 가까운 의미로 쓰이다가 유가의 이념인 ‘인(仁)사상’을 근간으로 하는 ‘천’의 개념이 대두되면서 상제개념은 사라지게 된다. 인사상의 천이 상제개념과 뒤섞이다가 천명(天命)사상으로 바뀌면서 천의 개념은 유가의 덕을 근간으로 하는 인간 중심의 사상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다. 상제에서 천으로 천에서 천명사상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노자는 ‘자연’사상을 주장하였다.

노자사상에서 세상은 자연의 법칙에 따라 변화된다고 하였으니 당시에 일반적으로 통용되었던 ‘상제’ 즉 초월자에 가까운 천의 관념과 인사상에 근간한 천명사상을 노자는 정면으로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노자의 자연사상이 대두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다. 당시 시대적 혼란 속에서 법과 제도는 백성들을 압제하였고 인간다움을 위하여 만든 법칙은 인간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당시의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자연으로 돌아가서 자연의 법에 따르라’고 하는 노자의 사상은 단비와 같은 것이었다. 노자가 말하는 자연은 신의 권능이나 인간의 법이 아닌, 규칙에 가까운 자연, 즉 도의 법에 따라 저절로 변화되는 ‘자연’처럼 세상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노자의 ‘자연’이란 모든 만물이 각기 스스로 존재하며 변화해가는 과정 전체를 가리키고 있다. 즉 인위를 가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존재하고 변화하는 그 과정 자체에 대한 형이상학적 의미가 깃들어 있다.”⁹⁾

표면적으로는 늘 그대로의 모습인 듯 보이는 자연도 그 이면에선 수축과 이완, 생성 소멸의 과정을 수없이 겪는다. ‘우주(宇宙)’는 천지이며 천지의 모든 것은 세상에 태어났다가 죽으면 되돌아가는 출생입사(出生入死: 제 50장)를 한다. “‘주宙’는 시간이며, 천의 세계이고, ‘우宇’는 공간이며, 지의 세계이다.”¹⁰⁾ 우주의 순환과 더불어 이 “천과 지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생성, 변화, 소멸이라는 과정을

그는 “천지는 어질지 않다”거나, “하늘의 도는 편애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폈다. 천지가 어질지 않다거나 천도는 편애하지 않는다는 이 주장은, 의지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나 집단에게 복과 화를 내릴 수 있다는 ‘주재자로서의 천’ 사상을 부정한 것이다”(유병래(2004), 老子의 爲道者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41-42 참조).

9) 최오목(2010), 老子의 生命倫理思想 研究, 원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p.23.

10) 심재권(2000), 장자의 무위자연사상, 한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11.

갖게 된다. 이 과정을 갖지 않는 사물은 하나도 없으며, 이것은 바로 모든 사물이 시간과 공간(宇宙) 안에 존재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모든 사물은 變하고 化한다.”¹¹⁾ 이런 모든 변화가 그 어떤 작위 없이 스스로 ‘자생자화’한다. 자생자화란 ‘다만 한다’는 의미이다. 물은 흐르는 데로 흘러가고 나뭇잎은 성장했다 결국 낙엽이 되어 다른 나무의 생육을 돕는다. 이런 변화의 층위에 ‘작위’는 없다. 이처럼 다만 이루어지는 현상을 노자는 이렇게 지적한다.

천하를 가지고 작위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될 수 없다. 천하는 신묘한 물건이라 작위 할 수 없나니, 작위하면 실패하고 잡으려면 잃어 버린다. 그러므로 세상의 사물이란 앞서 가기도 하고 뒤따르기도 하며, 훈훈하게 데울 때도 있고 차게 식힐 때도 있으며, 강한 것도 있고 약한 것도 있으며, 더해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는 것이다.¹²⁾

사물은 앞서는 것이 있으면 뒤따르는 것이 있는 것인데 이를 작위적으로 다르게 배열시키더라도 결국 어떤 것은 앞서고 나머지는 뒤따른다는 것이다. 노자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자연의 질서와 같이 인간도 자연의 질서에 따르게 되면 무위하게 된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노자의 철학이 ‘자연지도’로부터 ‘인지도’를 연역해 낸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자연’의 운행 원리를 틀로 삼아 인간이 지향해야 할 ‘무위’의 행동규범을 도출해내고 있다.”¹³⁾ 결국 자연의 모습을 닮으려면 인간은 ‘무위’하여야 한다. “‘자연’은 진리의 존재를 언급한 것이라고 한다면, ‘무위’는 인간 존재를 언급한 것이라 하겠다.”¹⁴⁾ 다시 말하자면, ‘자연’이 진리라면, ‘무위’는 비정상 상태의 부정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는 것으로 이를 ‘자연’에로의 복귀라고 한다.

『노자』에서 중요하게 드러나는 ‘자연’의 의미를 크게 3가지 정도로 분류하자면, 첫째, 출생입사로 순환하는 자연의 모습이다, 둘째, 작위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무위의 도이며, 셋째는 여백과 허의 공간 속에서 자연치유하는 것이다. 그러면 『노

11) 앞의 글, p.11.

12) 將欲取天下而爲之，吾見其不得已。天下神器，不可爲也，爲者敗之，執者失之。故物或行或隨，或歔或吹，或強或羸，或挫或隳(『노자』, 제29장).

13) 최오목(2010), p.34.

14) 노승만(2000), 老莊의 自然哲學에 관한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47.

자』에서 드러나는 다양한 자연의 모습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자연의 순환성

순환하는 자연의 모습은 “세상에 태어났다가 죽으면 되돌아가는(出生入死: 제 50장)” 것이란 『노자』의 표현에 집약돼 있다. 자연은 신이 원하는 시간에 태어나게 하고 신이 원할 때 죽음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변화는 일정한 법칙에 따른다. 최진석의 말을 들어보면, 노자는 성인들을 통해 계승되는 전통을 통해서도 아니고, 의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난 후에 얻어진 이성을 통해서도 아니며, 절대자가 부여한 영혼도 아니고(去彼), 오직 구체적인 눈앞에서 펼쳐지는 자연의 운행 모습을 보고(取此), 그 안에서 자연계의 운행원칙을 찾아내었다¹⁵⁾고 하였다.

자연의 운행법칙은 마치 달이 차면 기울듯이 나선형으로 순환한다. 죽음에는 새로운 삶이 도사리고 있으며 화에는 복이 숨어 있고 복에는 화가 내재하고 있다. 이것이 도의 법칙이며 자연의 이법이다. 노자는 부정을 통하여 긍정을 추구한다. 『노자』 제22장에서는 이러한 대대적 관계 속에서 순환의 의미를 깨닫게 한다.

굽히면 온전해지고 구부리면 곧아지고, 패이면 채워지고, 낡으면 새로워지고, 적으면 얻게 되며, 많으면 미혹된다. 이 때문에 도를 얻은 사람은 오직 하나만을 가지고 세상의 준칙을 삼는다. 스스로 드러내지 않으므로 밝아지고, 스스로 옳다고 하지 않으므로 드러나고, 스스로 자랑하지 않으므로 공이 있으며, 스스로 뽐내지 않으므로 오래간다. 오직 다투지 않으므로 천하가 그와 더불어 다투지 않나니, 옛날에 이른바 굽으면 온전해진다는 말이 어찌 헛말이겠는가! 진실로 온전히 도로 복귀하게 된다.¹⁶⁾

굽히면 온전해 진다는 말은 이미 굽힘이 가능태로서 온전함을 내포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낡으면 새로워지고 기다리고 있으며 스스로 옳다고 하지 않아도 저절

15) 최진석(2001), 『노자의 목소리로 듣는 도덕경』(서울: 소나무), p.151.

16) 曲則全 枉則直 窪則盈 敝則新 少則得 多則惑 是以聖人抱一 爲天下式 不自見 故明 不自是 故彰 不自伐 故有功 不自矜 故長 夫唯不爭 故天下莫能與之爭 古之所謂曲則全者 豈虛言哉 誠全而歸之(『노자』, 제22장).

로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복귀사상은 자연으로부터 비롯된 도의 드러남이다. “도는 성숙과 상실이 함께 가는 이중성임을 알 수 있다. 남을 위하여 자기 것을 잃을 수록 인간은 그만큼 더 많이 성숙한다. 이것이 노자가 말한 성인지도이다.”¹⁷⁾

순환운동은 되돌아오는 작용을 통해서 완성에 이른다. 순환한다는 것은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며 나선형이며 원의 형상이다. 세상의 이치란 변화와 발전이 극에 도달하게 되면 반드시 원래의 상태를 회복하는 운동을 하게 된다. 그 운동성향은 원의 유형이며 되돌아옴의 법칙, 즉 복귀이다. “복귀의 움직임은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을 항상성(恒常性)¹⁸⁾이라”¹⁹⁾한다.

“만물의 변화생성을 보라. 만물이 바야흐로 성장하는가하면, 천지의 허는 그 만물이 다시 수장이라는 과정을 타고 되돌아오기를 기다린다. 만물 또한 그 궤도에 따라 되돌아간다. 이렇게 천하만물은 각양각색의 활동을 벌이지만 결국 각자의 원위치인 뿌리로 되돌아간다. 그렇게 해서 만물은 영원히 성장 수장할 수 있는 것이다.”²⁰⁾ 노자는 “만물이 다 함께 자라나고 있지만, 나는 오히려 그 되돌아감을 보나니, 저 만물은 무성하지만 각기 그 뿌리로 다시 되돌아간다”²¹⁾고 지적하면서 자연의 법칙적 순환성을 환기시키고 있다.

우주의 법칙이 하나씩 밝혀지는 현대에 오히려 노자의 사상이 더 빛을 발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우주공학자들의 노력에 의해서 우주도 역시 생로병사가 있다는 것이 최근에 밝혀졌다. 이 세상에서 결국 영원한 것은 없다. 이것이 바로 노자의 순환의 원리가 빛나는 이유이다. “사나운 바람은 아침을 넘기지 못하고, 퍼붓는 소나기는 하루를 다하지 못한다”²²⁾고 노자는 말한다. 이것은 자연의 단순한 법칙이지만 인간의 욕심은 한치 앞도 보지 못하는 것이다. ‘내일도 태양은 뜬다’는 순리를 깨닫는 순간, 인간은 되돌아옴의 법칙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17) 김형효(1999), 『노장사상의 해체적 독법』(서울: 창계), p.226.

18) 항상성이란 생물학적 용어로 자연치유력 또는 자기회복력을 말한다.

19) 최오목(2010), p.181.

20) 김충열(2004), 『노자강의』(서울: 예문서원), p.57.

21) 萬物竝作, 吾以觀復, 夫物芸芸, 各復歸其根(『노자』, 제16장).

22) 飄風不終朝, 驟雨不終日(『노자』, 제23장).

강한 힘, 억지, 강제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 결국 힘이 극지점에 도달하게 되면 원점으로 되돌아오게 된다는 노자의 철학에는 부드러움의 미학이 내제되어 있다. 부드러움은 무위와 통한다. 노자사상의 부드러움을 드러내는 ‘무위(無爲)’란 무엇인지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2. 자연의 무위성

‘무위’에서 ‘무’는 동사로서 ‘부정하다’, ‘제거하다’란 의미이며, ‘무위’가 지니고 있는 또 다른 의미는 ‘떨어내다’ 혹은 ‘떨어내어 무위에 이룸’을 말한다. ‘무위’는 순리와 일치한다. 노자는 ‘저절로’라는 순리를 긍정하였다. 여기에는 부드러움이 있다. 자연스럽다는 의미는 무위(無爲)의 상태표현이라 할 수 있다.²³⁾ 이는 자연의 활동 상황이 부드럽다는 의미이고 이런 부드러운 활동의 상태가 무위이다. 노자는 무위를 설명하기 위하여 다양한 은유를 차용하여 무위의 상태를 표현한다.

예를 들어 물, 어린아이, 여성의 이미지를 통하여 무위의 상태를 묘사하기도 하는데 주로 부드러운 이미지다. 『노자』 제78장에 “천하에 물보다 더 유약한 것은 없다”고 했으며 물을 상선약수(上善若水)라고 하여 최고의 선으로 보았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낮은 곳으로 흐르면서 온갖 것들 사이로 스며들어 이로움을 준다고 하였다. 부드럽다는 것은 변화에 적응을 잘한다는 의미이며 일종의 머무름이며 뒤로 물러남이다.

노자는 “부드러움을 아는 것을 일컬어 한결같음이라고 하고, 한결같음을 아는 것을 일컬어 밝음(깨달음)이라고 하였다.”²⁴⁾ 세찬 파도는 한결같음과 다르다. 강한 무리들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발돋움 하는 이는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고, 뛰어넘는 이는 제대로 갈 수 없고, 스스로 드러내는 이는 밝지 못하고, 스스로 옳다고 하는 이는 드러나지 않고, 스스로 뽐내는 이는 오래가지 못한다.”²⁵⁾ 결국, 유연하고 부드러운 것들이 오래가고 더 강하다는 말이다.

23) 차옥승(1993), 노장사상(老莊思想)의 무위(無爲) 개념에 대한 연구, 『종교학연구』 12, p.90.

24) 骨弱筋柔而握固 未知牝牡之合然怒(『노자』, 제55장).

25) 企者不立, 跨者不行, 自見者不明, 自是者不彰, 自伐者無功, 自矜者不長(『노자』, 제24장).

천하의 물보다 부드러운 것이 없으나 단단하고 강한 것을 이기는 것은 이보다 나은 것이 없으니, 그것은 물보다 더 수월하게 행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연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기고 부드러운 것이 단단한 것을 이긴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나 실천하지는 못한다.²⁶⁾

부드러운 것이 강하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지만 실천하기 어렵다는 의미에는 애매모호함의 의미가 담겨있다. 결국 부드러운 것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지만, 부드럽다고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더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의미이다. 여기에는 상당한 의미가 담겨있다. 노자는 강한 것을 ‘도’라고 하지 않고 부드러운 것을 ‘도’라고 하였다. “유약한 것이 도의 작용”²⁷⁾이라는 의미는 ‘도’를 체득하고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함축하고 있다. 최진석은 “강대한 것은 대부분의 인위적 문화 체계이고, 부드러운 것은 자연의 운행방식이다”²⁸⁾라고 하였다. 인위적 문화 체계는 얼마든지 인간이 만들 수 있지만, 자연의 운행방식을 마음대로 하기는 어렵다.

강제는 힘의 논리가 작용한다. 『노자』제63장에서 “일삼되 역지로 일삼지 않고, 일하되 의도적으로 일하지 않으며, 맛을 내되 역지로 맛을 내지 말라고”²⁹⁾하였다. 무엇을 의도적으로 역지로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의미이다. 의도를 가지고 무엇을 한다는 것은 이미 순리에 어긋나기에 일이 저절로 이루어지도록 놓아두라는 것이다. ‘저절로’는 순리대로 가만히 둔다는 의미이다.

노자는 부드러움을 여성의 속성으로 본다. “남성다움을 알지만 여성스러움을 지켜서 세상의 계곡이 되니 세상의 계곡처럼 되면 영원히 덕이 떠나지 않으며 어린아이로 되돌아간다.”³⁰⁾ 여성을 세상의 계곡이라고 하였다. 계곡은 조용하고 낮으며 물이 고여 있는 곳이다. 계곡은 산꼭대기처럼 햇빛을 받아 바짝 마른 상태가

26) 天下莫柔弱於水，而攻堅強者莫之能，以其無以易之，弱之勝強，柔之勝剛，天下莫不知，莫能行(『노자』, 제78장).

27) 弱者道用也(『노자』, 제40장).

28) 최진석(2001), p.520.

29) 爲無爲 事無事 味無味(『노자』, 제63장).

30) 知其雄，守其雌，爲天下谿，爲天下谿，常德不離，復歸於嬰兒(『노자』, 제28장).

아니라 물기를 머금은 녹녹한 곳이다. 마른 것들은 부러지기 쉬우나 물기를 머금은 것들은 그 속에 생명력을 담고 있으며 오래간다. 그 부드러움 속에 덕이 있고 어린아이의 순수가 있다.

여성의 부드러움은 관계와 소통을 원활하게 한다. 김충렬은 부드러운 것은 강한 것처럼 헤어질 수 없이 굳게 뭉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것은 물체와 같은 것으로 딱딱한 것들 사이로는 어떤 것도 들어가기 어렵다. 그러나 기체와 같이 부드러운 것들은 얼마든지 희박해질 수 있고 상황에 따라 그 모습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흩어지면 허로 될 수도 있고 사물과 맞부딪치면 그를 피해 휘감아 둘 수도 있다고 하였다.³¹⁾ 부드러움은 적응이 빠르고 어디든지 파고들 수 있는 속성을 내포한다. 이는 여성의 모습이기도 하다.

적응이 빠르다는 것은 살아남기가 쉽다는 의미이다. 결국, “무위(無爲)란 인위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불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목적, 무의지적인 작용 즉 천지 대자연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르는 것이다. 따라서 무위(無爲)란 필연에 대한 인식도 포함한다.”³²⁾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필연’이다. 무위는 힘없이 뒤로 물러나는 소극적인 모습이 아니라 ‘필연’에 의해 생기의 힘을 스스로 토해내는 ‘풀무’와 같은 의미이다. 다시 말해 적극적으로 뭔가를 스스로 쏟아내고 있다는 것이다. 즉 무불위, ‘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의미 속에는 수많은 자연의 공능적 작용, 즉 우주의 공능성과 항상성이 담겨있다. 그것이 바로 자연치유의 능력이다.

3. 자연의 치유성

『노자』에서 ‘자연’은 쉼 없이 만물을 길러내고 조화를 이루면서 매일 새롭게 흐름을 따라 흐른다고 보았다. 이런 자연의 순환과정에서 변이현상이 생기더라도, 자연은 변이현상에 스스로를 맞추면서 자생적으로 치유된다고 하였다. “누가 능히 혼탁하게 섞여 있음으로써 천천히 맑게 할 수 있으며, 누가 능히 가만히 놓아

31) 김충렬(2004), p.243.

32) 조민환(1997), 『중국철학과 예술정신』(서울: 예문서원), p.185.

덤으로써 서서히 살아나게 할 수 있겠는가?”³³⁾ 이는 자연의 자정능력을 말하고 있다. 자연의 변화에 맡겨 천천히, 아주 서서히 탁한 것이 가라앉고 맑은 물이 올라 오도록 ‘가만히 놓아둔다는 것’으로 자생력에 의해 치유되기를 기다리라는 말이다.

“노자가 제시한 문제의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인위를 삼가고 자연의 섭리에 맡겨서 문제의 발생 근원을 차단하고, 이미 발생된 문제는 자연적인 정화 능력이나 자치의 자생력에 의해 치유되기를 기다리자는 것이다.”³⁴⁾ 이 말은 결국 자연의 변이 현상에 인간이 개입하여 작위를 가하게 되면, 오히려 자연의 섭리를 역행하게 되어 자연의 변이 현상은 더 왜곡되고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는 더 큰 매를 불러 온다는 속담과 같이 이 세상의 법을 뛰어 넘지 못하는 범죄는 없다는 의미와 상통한다. 자연의 왜곡은 더 큰 재앙을 불러오게 된다는 의미에 대하여 반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노자』에서 말하는 치유의 핵심은 ‘억지로’ 무엇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하고자 함이 없이 고요하면, 천하가 장차 스스로 질서 지어진다”³⁵⁾고 노자는 말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요함’이다. 고요한 상태로 기다린다는 것, 그것은 허의 상태이다. 그러나 그 허의 내부에는 생기의 기가 스스로 작용을 하여 새로운 것을 만들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 들여야 한다. 작위적으로 치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고요히 기다리면 ‘몸’은 알아서 자가 치유를 할 것이고, 물은 저절로 맑아지며, 죽은 나무에서는 새로운 나무가 싹트게 된다. 몸에 변이 현상이 생기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몸 안에서는 다양한 조절작용이 저절로 일어나니 기다리라는 말이다. 기다림은 자생력을 키운다. 이는 ‘공능적인 자연’의 의미가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³⁶⁾는 말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 속에 내포된 자연의 법칙을 읽어야 한다.

물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흘러가고 있으며, 공기가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

33) 孰能濁以靜之徐清? 孰能安以久動之徐生?(『노자』, 제15장).

34) 김충열(2004), p.45.

35) 無慾以靜, 天下將自定(『노자』, 제37장).

36) 無爲而無不爲(『노자』, 제48장).

고 돌고 돌며, 꽃은 사시사철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고 대지는 수축과 팽창을 통하여 자기 발전을 '스스로' 하고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자연은 쉼 없이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람은 땅의 편안하고 고유하며 평화롭고 부드러운 것을 본받아야만 한다. 땅에 씨앗을 뿌리면 오곡을 수확할 수 있고, 땅을 파면 달고 시원한 물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땅은 수고로우면서도 원망하지 않고, 공이 있으면서도 주재하려고 하지 않는다. 하늘은 담박하고 움직이지 않는다. 베풀면서도 보답을 바라지 않고, 만물을 성장시키고도 거두어 취하려고 하지 않는다.³⁷⁾

비록, 인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자연은 쉼 없이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 황하의 물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물속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물이 맑아졌다. 마찬가지로 땅에 씨앗을 뿌리지만, 비가 촉촉이 오는 자연의 수혜가 있고, 씨앗을 벗기지 않아도 씨앗은 스스로 자가 생장을 통하여 싹을 틔운다. 결국 “노자의 무위(無爲)의 爲는 무불위(無不爲)라는 지대한 효과를 보장받는 구체적인 실천 개념으로 이해된다.”³⁸⁾ 물고기는 물속에서 자연스럽게 노닐게 하고, 봉새는 하늘에서 훨훨 날게 하며, 뱀은 기어 다니게 두고, 학의 다리는 긴 상태 그대로 두면 된다. 물고기를 억지로 어항 속에 두거나 봉새를 가두거나 뱀을 병 속에 두거나 학의 다리를 짧게 만드는 인위를 가하게 되면 생명을 유지하기 어렵다. 이는 인간의 입장에서 사물을 변화시키거나 자연을 변화시키면 생명을 보존하기 힘들다는 언명이다.

자연치유는 느림과 기다림이다. 이런 노자사상은 애매모호하고 우물거리는 우언이라 치부되기도 했다. 그러나 우주의 운행법칙을 연구하고 퍼지 이론(Puzzy Theory)을 인정하고 있는 현대과학은 노자의 치유능력에 대해 새롭게 접근하고 있다. 이처럼 노자 사상의 치유와 생명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에는 21세기적 깨달음이 함축돼 있다. 노자는 “고요함이 조급함의 주인이라”³⁹⁾고 하였다. 노자는 언

37) 박중혁(2004), 노자(老子)의 무위자연(無爲自然)과 경물중생(輕物重生), 『중국학논총』 20, p.76.

38) 배영길(2003), p.20.

39) 靜爲躁君(『노자』, 제26장).

제나 때와 상황이 무르익기를 고요하고 느긋하게 기다려야 한다고 말한다. 이것이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자연치유의 효과이다.

Ⅲ. 한국춤에 드러난 『노자』의 자연성

‘자연미’는 미학을 논의하는 학자들이 가장 많이 거론하는 ‘한국미’의 본질적 속성이다. 자연미는 김수악의 진주교방 곳거리춤을 비롯하여 김숙자의 도살풀이춤, 하보경의 밀양북춤 또는 동래학춤 등 수많은 춤에서 드러나는 미의식이다. 그러면 한국춤에 드러난 『노자』의 자연관을 원(圓), 유(柔), 허(虛)의 관점에서 춤을 살펴보고자 하겠다.

1. 순환하는 원(圓)의 춤

한국춤에서는 유독 곡선적인 춤이 많다. 이런 곡선적인 춤이 드러나게 되는 역사적 증거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정병호는 이러한 춤의 원형적 동작의 틀을 삼국 시대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에 볼 수 있는 원형적 동작들의 틀은 전문적인 무용가들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예컨대 우리나라 춤의 원형적 동작이 싹트기 시작한 것은 삼국시대 무척들의 춤에서 살필 수 있다(.....)그러나 오늘날에 볼 수 있는 춤동작(춤사위)이나 형식은 조선후기에 성립된 것이며 춤동작의 원형적 틀을 생성시키는데 기여한 사람들은 농민들을 포함한 광대, 기녀, 창우 등이라 할 수 있다.⁴⁰⁾

이러한 역사적 기록들은 다양한 문서의 기록들 속에서 찾은 것이겠지만 그것보다 더 명확한 증거는 바로 오늘날 보이는 춤의 특성들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춤의 전통적 전승 방법인 몸의 기억은 그 특성상 글로 기록하는 것 이상으로 그 독특한 가치를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⁴¹⁾ 이러한 몸의 기억에서 비롯되는 원형성은 한

40) 정병호(1999), 『한국의 전통춤』(서울: 집문당), p.296.

국춤의 구조에서도 드러나는데 신상미는 이러한 한국춤 구조를 반복의 원리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고 윤희의 법칙과도 연관이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춤 구조의 원리는 몸놀림이 기본이 되어 음·양, 대삼소삼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어르고 맺고 풀기의 반복구조를 갖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복의 구조인데 동작과 틀이 되풀이되고 변형되어 변증의 방법으로 즉흥 창조된다. 그러한 계속적인 반복의 원리는 돌고 돌아 마침내 본래 자리로 되돌아오는 회귀·윤희의 법칙으로 이루어진다.⁴²⁾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춤 움직임과 구조의 바탕을 회귀와 윤희의 법칙으로 보고 있다. 이것은 일종의 사상의 관점에서 춤을 봐야 한다는 의미와 상통한다. 결국 우리의 사고가 춤의 움직임과 구조를 만들게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김말복 또한 춤과 사상을 연결하고 있으나 어떤 사상에 기인한다고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논의의 맥락을 살펴보면, 노자사상과 일치한다.

한국 예술에 나타난 곡선적 미감의 근원은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한 예술정신에서 유래한다고 생각한다.(.....)자연에는 어떤 경우든 곡선이고 원형의 요소가 있다. (.....)곡선적인 사고와 춤은 논리적으로 애매함과 모호함의 경향을 지니나 어떤 의미에서는 보다 폭넓은 시야를 보이는 유연한 이원적 사고와 정형화를 부정하는 살아 움직이는 조형성에 기초하고 있으며 자연과 어울리고자하는 정신이 있다.⁴³⁾

김말복은 이런 곡선적인 춤에 대해 자연성을 거론하며 애매함과 모호함 또는 정형화를 부정하는 조형성을 가졌다고 지적한다. 이런 미적 지향은 노자사상의 본질적인 특징과 연결된다. 결국 곡선이 가지는 움직임 자체가 이미 정신과 기개를 숭상하고 자기 극기를 추구하며 깨끗하고 명확하며 똑바른 자세를 추구하는 유교 사상에 입각하여 창제된 '일무'와는 다른 쪽에서 바라보는 미적경향이다.⁴⁴⁾

41) 오늘날 구비문학에 대한 가치가 인정되고 있고 학문적인 연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신체론과 장이론 등에 기반을 둔 몸의 '기억'에 대한 탐구는 몸 담론에서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 연구는 방대하여 다음 기회로 미루겠다.

42) 신상미(1998). 한국춤의 자연성과 즉흥성에 나타난 표현 특성 연구, 『대한무용학회지』 24, p.232.

43) 김말복(2002). 한국 춤에 나타난 미의식, 『무용예술학연구』 10, p.30.

우실하는 수렵·유럽 문화에 기반 한 북방 사머니즘 사유체계의 특징을 ‘3수 분화의 세계관’으로 지칭하고 이를 동북아시아의 모태문화로 바라보고 있다.⁴⁵⁾ 그는 이 3수 분화의 세계관은 여러 요인들과 습합되며 삼재론(三才論), 삼신사상(三神思想), 신선 도가사상, 풍류도 등으로 분화되었다고 바라본다. 그런데 그는 이런 관점에 기대 한국 전통춤의 시공간의 여백이란 특징에 주목한다.⁴⁶⁾ 이런 시공간의 여백은 직선이 아니라 곡선적인 움직임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원의 춤에서 대표적인 춤사위는 손목을 돌려 뒤집는 홀목사위이다. 전통춤 움직임의 핵심적인 동작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대부분의 전통춤에서 보이는 동작이다. 이 움직임은 살풀이 수건이나 장삼이나 한삼을 뒤집거나 검무 같이나 소고를 사용하는 과정에서도 주로 쓰이는 동작이다.⁴⁷⁾ 팔 또한 다양한 곡선을 그리는 움직임들이 대다수이다. 도는 동작이 많은 것 역시 곡선과 관련이 있다. 이런 곡선적인 춤이 나오게 되는 계기를 김말복은 소매길이가 무한히 확대된 장삼이나 바다까지 닿는 유난히 긴 길이의 처용 한삼이나 살풀이 수건 때문이라고 말한다. “손

44) 본 연구자는 정재 연구자가 아니기에 단정적으로 볼 수는 없으나 몇 가지의 논의들을 살펴본 결과, 정재에서 ‘일무’와 같은 정형화된 춤이 탄생된 배경에는 유교사상과의 관련성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궁중정재 조차도 몇몇 작품을 제외하고는 ‘정형화’를 언급하기 어렵다. 정형화된 움직임들은 주로 조선 초기에 궁중정재가 다수 창작되는 과정에서 형상화 된 것이 아닌가란 추측을 하게 된다. 그 이유는 유교주의 사상에 입각하여 예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춤의 구성이나 움직임이 유가의 음양론이나 오행의 관점에 합당하게 창작되었다. 그러나 불교를 숭상했던 고려시대 궁중춤의 움직임 특징들을 보면 주로 ‘눈송이’, ‘버드나무가지’, ‘구름이 일듯’ 등과 같은 움직임 용어들이 시가에 드러나는 것으로 보아 고려시대의 궁중무는 조선 초기에 창작된 춤과는 사뭇 달랐을 것이란 예측이 가능하다. 조선 초기에 창작된 궁중정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정재들도 신라로부터 고려를 거쳐 조선후기까지도 부드럽고 유연하며 진공에서 춤추는 듯한 움직임이 많았을 것이란 추측을 하게 된다. 김영희는 조선후기의 정재들이 선가 지향적이라고 하였다. 선가는 도가로부터 비롯되었고 도가사상은 노자로부터 비롯되었으므로 정재 일반을 유교적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김영희(2012), 조선후기 풍류의 선가(仙家)적 지향에 대한 연구-청가묘무, 풍악, 풍월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48, p.335-337, 참조).

45) 우실하(2010). 한국 전통문화의 심층 구조 ‘3수 분화의 세계관(1-3-9-81)’, 『민족학연구』 9, p.140.

46) 우실하(1998). 韓國傳統美學의 構成을 위한 試論, 『韓國音樂史學報』 20, p.263.

47) 한삼의 사용과 검무는 고구려시대부터 연원한다.

수건 크기만한 일본의 수건춤, 보자기만한 크기의 중국의 수건 춤에 비해 우리의 수건은 키를 넘길 만큼 횡적으로 길게 이어져 곡선적인 흐름을 그 본성으로 지니고”⁴⁸⁾ 있다고 하였다.

한국춤의 정수인 승무나 살풀이춤에서 승무의 장삼이나 살풀이 수건이 공중에서 선을 그리고 지나가면 그 여운은 오래 남는다. 이런 상상적인 선이 여운 속에 남아있는 춤은 대부분 느리고 여유가 있다. 이런 초월적이며 탈세적이고 신비주의적인 느낌이 나는 원의 춤은 노자사상의 곡선적 사유를 잘 반영하고 있다.

2. 부드러운 유(柔)의 춤

춤이 부드러운 것은 앞에서 보았듯 곡선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곡선적 사고, 그것은 노자사상에서 드러나는 무위의 춤이다. 자연미를 연구한 김추자는 한민족의 자연에 대한 사고 체계는 동양의 자연관에서 드러나는 ‘스스로 그러함’과 ‘저절로 그러함’에서 비롯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자연에 대한 사고체계인 자연의 순응과 춤의 형식에서 나타나는 자연환경의 묘사와 수궁은 춤의 형성에도 그대로 나타난다고 하였다.⁴⁹⁾ 결국, 한국 춤의 원형을 자연에 대한 인식인 ‘저절로 그러함’에 둔다고 하였는데 이는 노자가 말하는 무위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작위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무위의 부드러운 춤은 노자로부터 장자로 이어지는 동양적 사고이지만, 미국에 까지 이 무위사상은 퍼져나갔다. 정은영은 이러한 부드러움의 미적 지향을 퍼지적 문화라고도 말한다. 이 개념은 미국의 수학자 L.A. 자데박사가 ‘퍼지집합(Fuzzy Set)’이라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고안되었다.⁵⁰⁾ 이 이론은 “숨털 같은”이란

48) 김말복(2002), p.32.

49) 김추자(2001). 한국 춤의 자연미 연구, 『경남 체육연구』 6(1), p.98.

50) 과학기술에는 걸맞지 않는다고 여겨지고 있던 인간의 사고나 판단의 애매함을 수량화하는 것으로, 인간과 밀접하게 관련된 기계나 시스템에 새로운 발전의 길을 여는 공학 분야다. 1965년에 미국의 수학자 L.A. 자데박사가 퍼지(fuzzy=희미한)이론을 제창한 것이 시초이다. Yes(1), No(2) 등으로 나눌 수 있는 디지털적 발상이 아니라, 어느 곳도 아닌 중간 영역에 착안한 것이 특징이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9670&cid=614&categoryId=614>)

뜻의 퍼지로 솜털을 통해서 사물을 보면 그 형태가 확실하지 않은 것처럼 분명치 못함, 애매함을 의미한다. 우리의 퍼지적 문화는 매우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솜털과 같이 부드러운 미각, 시각, 청각을 지닌 민족이 “한국민족”이라고 하였다.⁵¹⁾ 이 이론은 동양적 신비주의가 미국을 풍미하던 1960년에 이루어진 개념으로 노자사상으로 비롯되는 선사상과의 연관성을 짐작할 수 있다.⁵²⁾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인 듯한 노자사상이 오늘날 현대인들에 의해 열광되어 지는 이유는 노자이론의 정당성이 자연과학에서 조차 서서히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국춤에서 드러나는 무위의 춤은 “숨을 쉬며 의식하지 않는 가운데 변화와 생명력이 있는 것이다. 생긴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수많은 허점투성을 를 감추듯 내보이면서 우리의 선천이 그려간 곡선의 굴곡처럼 순리적으로 추는 춤이다.”⁵³⁾ ‘순리’는 부드럽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춤들을 곱삭은 한국음식에 비유하기도 한다. “뻗뻗하지 않고 거칠지 않으며 콩이나 메주가 시간을 두고 삭아야 제대로 맛을 내는 된장, 고추장이 되고 무, 배추도 소금에 절여서 시간을 두어야 뻗뻗하던 것들이 산화되어 물리적으로 부드러워지는 김치가 되듯이 자연스럽게 시간을 두고 삭히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의 대표적인 음식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의 미의식 개념 중에는 순리의 마음으로 시간을 두고 삭히는 결로써의 가치가 있다.”⁵⁴⁾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기다림’이다. ‘기다림’은 여유이며 여백이고 공간과 시간을 흘러보내는 한산함이 있다. 그 ‘기다림’은 춤을 곱삭게 하고, 이해하게 한다. 이러한 곱삭은 춤의 미, 그 여유와 한산함은 정신적 치유효과 마저 경험하게 한다.

51) 정은영(2006), 부드러움의 한국적 이미지 표현 연구-민속춤을 중심으로-, 『움직임의 철학』 14(2), p.260.

52) 접촉즉흥을 연구한 안신희는 접촉즉흥의 배경이 노장적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접촉즉흥무용에는 노장의 무위자연 정신과 원리를 많이 내포하고 있다.” (안신희(2003), 접촉즉흥에 나타난 무위자연사상, 『대한무용학회』 39, p.222) 접촉즉흥은 곡선과 부드러움이 춤의 중요한 특징으로 동양사상으로 비롯되었다는 역사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53) 김추자(2001), p.104.

54) 정은영(2006), p.258.

3. 자생적인 허(虛)의 춤

건강에 대한 관심은 점점 더 그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자연치유에 대한 관심 또한 팽배하다. TV 프로그램은 ‘자연’에 포커스를 둔 프로들이 유독 많아졌다. 힐링이나 웰빙은 생활전반에서 그 위력을 과시하고 있다. 다변화되고 복잡한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 되었으며 이를 치유하기 위해서 현대인에게 힐링은 삶의 사치가 아니라 절실한 필요가 되어가고 있다. 스트레스는 근육을 긴장하게 하고, 혈맥을 조이게 하여 유동적이어야 할 생장의 원활한 흐름을 제어하게 된다. 스트레스에는 흐르는 것을 막는 강제와 힘이 작용한다. 강제와 힘을 풀고 여유롭게 맥을 열어주면 스트레스는 저절로 치유될 수 있는 마음의 병이다. 이러한 마음의 병은 정신적 치유를 통해서만 심신의 안정을 취할 수 있다.

이런 정신의 문제와 관련하여 오늘날 예술을 통한 치유에 관심이 많아졌다. “예술치료의 한 분야인 무용치료는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개인의 감정과 정서를 신체의 움직임을 통해 표현하는 기능이며, 정신과 신체의 조화를 이루게 하여 심신의 안정과 정화에 도움을 준다.”⁵⁵⁾ 메를로 폰티의 몸철학 이후 몸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확대되었으며 몸과 정신의 연관성이 중요함은 노자를 다시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었다. 서구사회에서 조차 노자에 대한 인기는 불교와 인도명상과 더불어 극대화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무용동작치료는 의학적으로도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실정이다.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의 발달과 더불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국내에도 유입되어있다. 주로 심신의 자유와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들이다. “무용은 신체를 인간의 내면세계를 표출하는 매개체로서 사용하여, 의식 또는 무의식의 내면적 세계를 동작 즉 무용으로 표출함으로써 행위자의 정서적, 심리적인 내면세계를 관찰하고 이를 심리치료에 활용함으로써 무용치료 개념의 중요성이 확대 되고 있다.”⁵⁶⁾

55) 권영균, 이지향(2009), 치유무용으로서 선무의 특성과 효과에 관한 소고(小考), 『한국체육학회지』 48(5), p.328.

56) 차수정(2008), 한국인을 위한 심리치료로서의 전통 무용의 가치-살풀이춤을 중심으로-, 『韓國思想과 文化』 41, p.339.

노자사상이나 불교 또는 인도명상에서 드러나는 중요한 개념은 바로 ‘비우는 것’이다. 노자는 비우면 다시 채워진다고 하였다.

텅 빈에 이르기를 지극히 하고, 고요함 지키기를 독실히 하여 만물이 함께 일어나 되돌아감을 나는 본다. 만물은 무성하지만 각기 그 뿌리(근원)로 되 돌아간다. 뿌리로 되돌아가는 것을 일러 고요함(정)이라 하고, 고요함을 일러 운명(명)으로 돌아감이라 하고, 운명으로 돌아감을 일러 늘 그러함(항상)이라하고, 늘 그러함을 아는 것을 일러 밝음(명)이라 한다.⁵⁷⁾

고요하면 명으로 돌아간다고 하였다. 시끄럽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태에서 고요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거기에는 여백 즉 기다림의 여유가 필요하다. 한국 전통춤의 살풀이춤은 주로 이런 치유의 춤으로 거론되고 있고 실제 중년여자들의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한국춤은 각광 받고 있다.

차수정은 스트레스 치료에 살풀이춤의 ‘연속적 근육이완 훈련’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는데, 스트레스의 관리 조절을 위한 근육의 긴장과 완화 훈련은 살풀이춤의 맺고 푸는 정과 동의 형태로 개념화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신체 각 부분의 근육을 수축, 이완시켜 자신의 신체를 변화와 반응에 예민하게 만들고, 이완을 통해 신체와 정서 내면의 부조화를 외부로 분출함으로써 스트레스를 관리 조절한다고 하였다.⁵⁸⁾ 결국 ‘풀다’는 스트레스의 해소이며 버린다는 의미이다. 풀고 난 후에 남는 것은 해소이고 버리고 난 뒤에 생기는 것은 여유와 여백이다. 발산은 결국 억압되어 있던 내부의 불균형을 외부로 버리는 것으로 스트레스와 같은 강제를 푸는 행위이다.

굿거리춤은 호흡의 주기에 맞는 음악이라고 하였다. 한명희는 한국의 음악을 ‘폐부의 음악’이라고 하여 ‘심장의 고동’에 기초한 서양음악의 박(Beat)과 ‘호흡주기’에 맞춘 한배(一息)에서 동양음악의 느긋하고 여유 있는 굿거리춤의 느낌을 설명하고 있다.⁵⁹⁾ 호흡은 인간 삶에 있어 가장 자연스러운 행위이다. ‘심장의 고동’

57) 致虛極，守靜篤：萬物竝作，吾以觀復。夫物芸芸，各復歸其根，歸根曰靜，是謂復命，復命曰常，知常曰明(『노자』, 제16장).

58) 차수정(2008), p.352.

은 힘이 있고 생기가 넘치지만, 평상심보다 에너지가 더 필요하다. 심장의 고동이 뛰는 것은 흥분과 관련이 있으며 거기에는 힘 즉 에너지가 작용한다. ‘힘’은 오래 가지 못한다. “사나운 바람은 아침을 넘기지 못하고, 퍼붓는 소나기는 하루를 다 하지 못한다”⁶⁰⁾고 노자는 말하였다. 심장의 고동은 가끔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스트레스가 만연한 현대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심장의 고동 소리가 아니라 편안한 호흡이다.

한국춤의 기본이 되는 음악이 굿거리춤이다. 3수 분화에 맞는 굿거리 음악은 천천히 느리게 마치 새근거리며 잠을 자는 아이의 숨소리와 같이 편안하고 느긋하다. 이런 여유와 느림의 춤으로부터 시작해서 결말에는 엑스타시와 같은 흥분의 짧은 자진모리로 끝나는 한국춤에는 순환하는 춤의 구조가 들어있다. 자진모리의 끝에 다시 굿거리춤으로 돌아옴으로서 마음의 희열과 평화가 축축하게 무용수의 가슴에 스미게 된다. 이런 안정감은 ‘대삼소삼’의 움직임 구조에서도 드러나는 자연적인 순환이며 물결이 넘실거리듯 흘러가는 것이며 느리고 여유로운 춤이다.

IV. 진주교방 굿거리춤에 드러난 『노자』의 자연성

『노자』의 자연성은 수많은 한국춤 특히, 민속춤에서 많이 드러나는 춤의 미의식이다. 한국춤에서 드러나는 자연미는 노자사상뿐 아니라 도가사상, 선사상, 삼재사상, 풍류도 등 다양한 사상들의 습합 속에서 이루어졌지만, 그 근원의 탐구는 노자로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노자』의 자연미가 여실히 드러난 춤 중의 하나가 김수악의 진주교방 굿거리춤이다. 그러면 『노자』의 자연주의가 진주교방 굿거리춤에 어떻게 드러나는지 연구하기 위하여 먼저 예인 김수악을 통하여 자연주의 사상이 어떤 식으로 녹아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예인 김수악의 삶과 춤을 살펴

59) 김말복(2002), p.39(신대철(2001), 『우리음악, 그 맛과 소리깔』(서울: 민속원), pp.250-253. 재인용).

60) 飄風不終朝, 驟雨不終日(『노자』, 제23장).

본 뒤, 앞에서 살펴본 원, 유, 허의 관점에서 사상이 춤에 어떤 식으로 스며있는지 연구하겠다.

1. 김수악의 삶과 『노자』의 자연

무위의 경지에서 자연과 더불어 노닐던 대표적인 한국의 예인에 김수악⁶¹⁾이 있다. 김수악은 어려운 사회·문화적 상황에서도 굳건히 진주 지방의 춤들을 전수 받고 또 전수하였다. 그 결과 김수악은 1997년에 그녀의 대표적인 춤인 '진주교방 굿거리춤'으로 지방무형문화재 제21호로 지정되기에 이른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곳곳하게 자신의 예술혼을 지켜왔던 그녀는 2009년 진주에서 소박하고도 뜨거웠던 삶을 마감하였다.

김수악은 예술과 자연의 이치를 터득한 무용가였다. 명무이면서 명창이었고, 뛰어난 가야금주자이면서 진정한 멋을 아는 장구재비였으며, 또한 쇠를 능수능란하게 다루었던 팽과리연주자였다. 춤과 음악을 넘나들면서 황홀한 상태에서 버드나무가지와 같은 여유와 낭만의 춤을 구사하던 그녀는 규정지어지고 형태 지어진 틀 속에서 안온하게 머물 수 없었던, 태생적으로 풍류를 몸에 간직한 자유로운 영혼의 예인이었다.

김수악은 춤 속에서 음악의 맥락을 찾았으며 음악의 흐름 속에서 구음을 흥얼거렸고 구음의 맺음을 장구로 하였다. 김수악의 진주교방 굿거리춤은 수양버들이 흐느적거리듯이 자연에 얽혀 흘러가는, 춤을 억지로 추려고 애쓰지 않아도 춤이 저절로 되는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춤이었다.⁶²⁾ 이런 그녀의 춤은 노자의 무위자연 사상인 '스스로'에 의해 합법칙적으로 이루어지는 공능적 '자연'의 모습 그 자체라 할 수 있다.⁶³⁾

김수악이 비록 노자의 사상을 이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그녀의 몸은 태

61) 김수악(1925~2009)은 경남 함양군 안의면 서하리에서 김중옥과 유몽길 사이에서 셋째 딸로 태어났다. 9세에 진주권번에 입학하여 예술교육이수, 1967년 중요무형문화재 제 12호 <진주검무>와 1997년 경상남도무형문화재 제 21호 <진주교방 굿거리춤>으로 기예능보유자로 지정되었다.

62) 弱也者 道用也(『노자』, 제40장).

고의 소리와 춤이 유전적으로 내면화된 ‘도’를 터득한 명무의 몸짓이었다. 양 팔을 옆으로 펴들고 무진 무퇴하거나 천천히 빙그르르 회전하는 동작인 평사위에서 여백의 미는 절정에 달한다. 고아한 한아미가 돋보이고 넉넉하고 편안한 느낌이드는 김수악의 춤에서 도를 터득한 예인의 초월함을 엿볼 수 있다. 양팔로부터 흘러 나오는 흐름은 손끝에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한대의 수평선처럼 넓고 광활하며 끝없이 열려있다. 그것은 마치 평평한 바다 위에서 조금씩 출렁거리는 물의 움직임에서 노니는 돛단배와 같은 느낌, 그것이 김수악의 춤이다.

김수악의 춤만이 아니라 그녀가 두드리는 장고의 울림에도 또한 그녀가 뜬 가야금 소리에도 노자사상이 담겨있다. 긴장도 머뭇거림도 애씀도 없이 저절로 흘러가니 노자가 말하는 열린 자연이 그 소리와 춤에 담겨있다. 이러한 사상적 지향은 김수악이 부른 노랫가락 속에서도 여실히 나타난다.

금잔디 양지쪽, 명경 같은 맑은 곳, 해 올라 달 따러 달나라로 박을 타고 가고 싶네, 푸른 하늘 흰 구름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산의 짐승 산새소리는 이 내 마음을 설레이네(즉흥 구음) 꽃 피는 새 동산아 꽃 피는 새 동산아~~~⁶⁴⁾

이와 같이 그녀가 부른 가사 속에서 그 의식과 사상의 토대를 현저히 느낄 수가 있다. 금잔디 양지쪽이나 명경같이 맑은 곳에서 창공을 훨훨 나는 장자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으며 달 따러 달나라로 가려고 박을 탄 그녀의 모습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천진난만함이 묻어 있다. 그것은 마치 부드러움을 다하여 능히 어린아이와 같이 하라는 노자의 가르침⁶⁵⁾과 다를 것이 없다. 활개사위를 하고 먼 곳을 바라보는 그녀의 춤은 열린 공간 속의 자연 그 자체이며, 수양버드나무 가지가 움직이듯 춤을 추라고 하는 김수악의 춤미학은 노자의 자연주의 미학이 드러난 춤이라 할 수 있다.

63) 無爲而無不爲(『노자』, 제37장).

64) 김수악의 노래 ‘선경춘풍’이다. 이 노래와 남도민요의 ‘꽃피는 새 동산’은 곡조가 매우 비슷하게 나타나지만 장단의 구성면에서는 다른 점이 보인다. 김수악이 ‘꽃피는 새 동산’을 춤에 어울리는 가사로 각색하여 부르게 된 것 같다(남선희(2010). 김수악의 진주교방굿거리춤 연구, 경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20).

65) 專氣致柔 能嬰兒乎(『노자』, 제10장).

2. 진주교방 굿거리춤에서 드러나는 원, 유, 허의 춤

진주교방 굿거리 춤에는 원, 유, 허의 춤이 여실히 드러난다. 원의 춤, 즉 곡선적인 춤은 진주교방 굿거리춤 중 휘영청 사위에서 그 모미가 극명하다. 휘영청 사위는 손목과 팔꿈치를 유연하게 순차적으로 원을 그리는 동작이다. 머리 바로 위 정수리쯤에서 뒤쪽을 향하여 오른손을 시계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마치 낙엽이 바람에 구르듯이 부드럽고 유연하게 흘러내리게 하는 동시에 왼팔을 어깨쯤에서 시계 방향으로 팔꿈치를 이용하여 원을 돌리는 동작이다. 이때 순차적으로 안쪽을 향하여 손과 팔을 돌려 옆으로 벌리는 듯 하다가 다시 양손을 홀목 사위로 뒤집는 동작인데 이 동작은 돌고 도는 사위이다. 왼쪽으로 몸을 천천히 빙그르르 돌리면서 손목과 팔꿈치가 순차적으로 돌러지는데, 이것은 마치 눈송이와 같이 부드럽고 유연하게 한손목이 돌러지면 대대적으로 다른 쪽의 팔이 돌러지는 춤사위로 작고 큰 원들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움직임은 천천히 손과 팔로 원을 그리고 돌기 때문에 최면상태에 빠지는 듯한 묘한 매력이 있다.⁶⁶⁾

진주교방 굿거리춤에서 보이는 진공과 같고 눈송이와 같으며 버드나무가지가 휘영청 거리듯 한 춤의 미적 지향은 부드러움을 춤의 특징으로 하고 있다. 부드럽다는 것은 ‘힘’을 최소화한 것이며 작위적인 동작이 나오기 어려운 움직임의 질이다. 진주교방 굿거리춤에서 활개사위나 평사위는 중심으로 에너지를 응축하는 춤이 아닌 부드럽고 유연하게 내면의 에너지를 밖으로 열고 넓게 벌려서 수평으로 퍼지게 하는 춤사위들이다. 이 움직임들은 넓고 넓은 대지 위에서 마치 풍선처럼 붕 떠있는 듯한 춤으로 황홀한 미감을 발현한다. 여기에는 긴장감이란 찾아 볼 수가 없다. 부드럽고 유연하며 열려진 노자의 철학이 담겨있는 춤이다.

김수악은 제자들에게 늘 입버릇처럼 “춤은 자연스럽고 유연하게 추어야한다”⁶⁷⁾고 하였다. 부드럽고 유연한 것은 사실 따라 하기가 더 어렵다. 정확한 움직임 선

66) 진주교방 굿거리춤은 입춤의 한 유형으로 즉흥성이 강조된다. 휘영청사위도 10년의 세월 동안 조금씩 배우는 과정에서 달라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 휘영청 사위는 1992년 11월 3일 국립극장 소극장에서 공연된 김수악류 〈손인영의 우리춤〉 공연을 위하여 김수악 선생님에게 배운 춤을 그 틀로 잡았다.

이 있다거나 명확한 동작의 각이 있다면 배우기가 쉽겠지만, 김수악의 교방굿거리 춤은 물처럼 흐르는 선들이 많고 넉넉하고 곰삭은 듯한 여유로움이 있기에 춤의 맛을 낸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 그것은 연륜과 세월의 흔적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며 터득하고 이해하여 저절로 흘러나오는 멋과 맛이 있어야 제대로 춤의 진가를 볼 수 있다. 이런 종류의 춤은 감히 흉내조차 내기 어렵다. 이것이 바로 노자가 말하는 ‘도’의 춤이다. 노자는 곡선적이고 부드러우며 고요하고 뒤로 물러나는 자세를 지지한다.

진주교방 굿거리춤에는 ‘힘’의 논리가 작용하지 않는다. 어딘지 심심한 듯, 동작이 없는 것 같기도 하지만, 묘하게 최면에 걸리는 듯한 신비한 느낌이 드는 이유는 춤의 자연스러움과 연륜 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김홍경이 『노자』를 ‘늙은이의 노래’⁶⁸⁾라고 한 것처럼 『노자』에는 연륜이 녹아 있다. ‘힘’과 ‘열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추기에는 버려야 할 힘이 너무 많은 춤이 진주교방 굿거리춤이다. 버리고 버려서 공기에 날아가는 깃털과 같은 춤은 노자가 말하는 부드러움의 드러남이다.

춤의 형태 또한 자연의 모습을 많이 닮아 있다. 춤을 수양버드나무 가지에 비유하는 예인 김수악은 자연스러움을 늘 강조하였다. 뿐만 아니라 자연의 형상을 닮아 있는 잉어걸음, 까치발 또한 물속에서 지느러미를 치며 노는 잉어 모습과 까치발을 흉내 낸 것이다. 이러한 진주교방 굿거리춤의 대표적 동작인 휘영청, 잉어걸이, 제비체의 경우도 부드러움으로부터 비롯되는 자연적인 움직임이다.⁶⁹⁾

호흡주기에 맞는 굿거리 음악에 구음까지 섞어 부르는 소리에 김수악의 진주교방 굿거리춤을 추게 되면 마치 한산한 정자에서 망망대해를 보는 느낌이 든다. 양팔을 활짝 벌리고 빙그르르 도는 여유와 낭만과 흥이 묻어 있는 이 춤을 추면 가

67) 남선희(2010), 김수악의 진주교방굿거리춤 연구, 경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82.

68) 김홍경(2003), 『노자-삶의 기술, 늙은이의 노래』(서울: 들녘).

69) 장미라(2009), 진주교방 굿거리춤의 양상(樣相)연구: 삼재론(三才論)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51. 이미영(2008), 무위자연 관점에서 본 진주교방 굿거리춤, 『한국무용연구』 25(2), p.100.

슴의 응어리들은 서서히 사라지게 된다. 깃털처럼 가볍고 눈송이처럼 푹푹한 느낌으로 추는 진주교방 굿거리춤의 한산함과 여유는 춤추는 이나 보는 이로 하여금 안정과 편안함을 준다.

이한순은 진주 교방굿거리 춤에 대해 단조로우면서도 온화하며, 여유 있는 멋으로 승화되어 있고 밖으로 에너지를 무한히 확장시키는 춤이라고 하였다.⁷⁰⁾ 마지막에 추는 소고춤의 흥은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여 산꼭대기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듯한, 내면의 자유를 느끼게 한다. 이애주는 “어르고 맺고 푸는 삼박자로 시공을 초월해 움직임이다보면 엑스타시를 이용해 과거 현재 미래의 삼세를 잇는 카타르시스의 경지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였다.⁷¹⁾ 이것은 힘의 극지점에서 돌아오게 되는 풀의 의미이고 되돌아옴의 법칙이며 자연치유의 초월성이다.

V. 결론

본 논문은 『노자』의 자연관에서 드러나는 순환성, 무위성, 치유성이 한국춤의 미의식인 원(圓), 유(柔), 허(虛)의 춤과의 상관성을 연구하여 사상이 춤에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밝혔다. 『노자』의 자연주의 사상은 도가나 선사상에 녹아들어 북방 샤머니즘 전통에 기반을 둔 3수 분화와의 융합을 통하여 한국인의 기층문화를 형성하였다. 그러므로 ‘자연미’는 한국인의 기층문화에 광범위하게 퍼져있고 춤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되는 미적 범주이며 한국춤의 중요한 핵심어이다.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노자』에서 중요하게 드러나는 ‘자연’의 의미에 대하여 정리를 해보았고 이어 3가지 측면에서 자연을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1. 자연의 순환성: “세상에 태어났다가 죽으면 되돌아가는(出生入死: 제 50장)”
것이란 노자의 사상으로 모든 생물은 달이 차면 기울듯이 순환한다는 것이다.

70) 이한순(2002), 진주 교방(敎坊)춤의 미적 특질 연구: 교방 굿거리춤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16.

71) 신상미, 이애주(2013), <한발춤>의 치유성 연구, 『민족미학』 12(1), p.26.

2. 자연의 무위성: 『노자』 제78장에 “천하에 물보다 더 유약한 것은 없다”고 했으며 물을 상선약수(上善若水)라고 하여 최고의 선으로 보았다. 물은 무위를 드러내는 은유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지 못하는 것이 없는 것이 자연의 무위성이다.

3. 자연의 치유성: “하고자 함이 없이 고요하면, 천하가 장차 스스로 질서 지어진다.”⁷²⁾고 노자는 말하였다. 고요하게 기다리면 생기의 기가 스스로 작용을 하여 자연적으로 치유가 된다는 의미이다.

『노자』에서 드러나는 자연의 의미를 살펴본 후 한국춤에서 자연성이 어떻게 광범위하게 드러나는지를 논의하기 위하여 원(圓)의 춤, 유(柔)의 춤, 허(虛)의 춤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어서 예인 김수악의 삶을 통하여 노자의 자연주의가 어떻게 몸에 체현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원, 유, 허의 춤이 진주교방 굿거리춤에 어떻게 녹아 있는지 살펴보았다.

1. 순환하는 원(圓)의 춤: 춤의 움직임과 춤의 구조에서 곡선적인 원의 춤이 한국춤 전반에 스며있는 것을 알았으며 진주교방 굿거리춤의 휘영청사위나 홀목사위에서 곡선적 원의 진가가 드러난 것을 살펴보았다.

2. 부드러운 유(柔)의 춤: 버드나무가지와 같은 부드러운 춤은 연륜과 세월의 흔적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며 넉넉하고 곱삭은 듯한 여유로움이 있기에 춤의 맛을 낸다는 것을 알았다. 김수악의 교방굿거리 춤은 물처럼 흐르는 선들이 많으며 숨처럼 진공상태에서 추는 듯한 느낌이드는 부드러운 춤이었다.

3. 자생적인 허(虛)의 춤: 호흡주기에 맞춘 굿거리음악과 한국 전통춤의 느낌과 여유는 예술치료적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밝혔다. 굿거리춤에 맞춘 김수악의 춤은 한산한 정자에서 망망대해를 보면서 양팔을 활짝 벌리고 빙그르르 도는 여유와 낭만과 흥이 묻어 있는 춤으로 심신의 희열과 안정감을 가져다준다는 것을 연구하였다.

연구를 통해 김수악이 비록 노자의 사상을 이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그

72) 無慾以靜，天下將自定(『노자』, 제37장).

녀의 몸은 태고의 소리와 춤이 유전적으로 내면화된 ‘도’를 터득한 명무의 몸짓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상은 몸에 은닉되어 흐름으로 표출된다. 춤추는 몸에 내재된 생각의 언어는 온갖 체험과 삶의 여정 속에서 쌓이고 쌓여 몸짓으로 드러났다. 김수악의 자연주의적인 춤은 오랜 문화적 풍토 속에서 온 몸으로 삶을 살아 온 예인에게서 저절로 드러난 몸의 기억이다. 그것은 일부러 만들려고 해도 만들어지지 않는 문화의 결이며 몸의 흐름이다. 이러한 오랜 문화적 결에 의해 드러난 몸의 유동적 흐름은 관찰의 대상이 아니라 관조의 머무름이다.

노자는 “문밖을 나가지 않아도 천하를 알고, 들창을 엿보지 않아도 하늘의 길을 본다”⁷³⁾고 하였다. 순환하는 자연의 법칙과 후하하는 천하의 이치와 자정능력은 하늘의 길이다. 자연의 흐름을 그대로 따르는 한국춤의 미의식은 다양한 관점에서 그 가치가 확인되어야 한다. 동양철학적 관점에서 사상을 탐구하는 일은 춤과의 상관성을 밝히는데 있어 중요하게 작용한다. 춤과 동양사상과의 상관성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 참고문헌

- 김경애, 김채현, 이종호(2001). 『우리무용 100년』. 서울: 현암사.
- 김충열(2004). 『노자강의』. 서울: 예문서원.
- 김형효(1999). 『노장사상의 해체적 독법』. 서울: 창계.
- 김홍경(2003). 『노자-삶의 기술, 늙은이의 노래』. 서울: 들녘.
- 정병호(1999). 『한국의 전통춤』. 서울: 집문당.
- _____ (2004). 『한국무용의 미학』. 서울: 집문당.
- 조민환(1997). 『중국철학과 예술정신』. 서울: 예문서원.
- 최진석(2001). 『노자의 목소리로 듣는 도덕경』. 서울: 소나무.
- 권영균, 이지향(2009). 치유무용으로서 선무의 특성과 효과에 관한 소고(小考). 『한국체육학회지』, 48(5): 327-336.

73) 不出戶, 知天下; 不關牖, 見天道(『노자』, 제47장).

- 김말복(2002). 한국 춤에 나타난 미의식. 『무용예술학연구』, 10: 17-44.
- 김추자(2001). 한국 춤의 자연미 연구. 『경남 체육연구』, 6(1): 93-112.
- 남선희(2010). 김수악의 진주교방굿거리춤 연구. 경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노승만(2000). 老莊의 自然哲學에 관한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중혁(2004). 노자(老子)의 무위자연(無爲自然)과 경물중생(輕物重生). 『중국학논총』, 20: 73-99.
- 배영길(2003). 老子『無』概念의 生命性: 건축공간개념의 실천적 적용.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상미(1998). 한국춤의 자연성과 즉흥성에 나타난 표현 특성 연구. 『대한무용학회』, 24: 223-237.
- 신상미, 이애주(2013). <한발춤>의 치유성 연구. 『민족미학』, 12(1): 15-38.
- 심재권(2000). 『장자의 무위자연사상』. 한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우실하(2010). 한국 전통문화의 심층 구조 '3수 분화의 세계관(1-3-9-81)'. 『민족학연구』, 9: 139-167.
- _____ (1998). 韓國傳統美學의 構成을 위한 試論. 『韓國音樂史學報』, 20(1): 253-270.
- 이미영(2008). 무위자연 관점에서 본 진주교방 굿거리춤. 『한국무용연구』, 25(2): 85-106.
- 이한순(2002). 진주 교방(敎坊)춤의 미적 특질 연구: 교방 굿거리춤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장미라(2009). 진주교방 굿거리춤의 양상(樣相)연구: 삼재론(三才論)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은영(2006). 부드러움의 한국적 이미지 표현 연구 -민속춤을 중심으로-. 『움직임의철학』, 14(2): 255-267.
- 차수정(2008). 한국인을 위한 심리치료로서의 전통 무용의 가치 -살풀이춤을 중심으로-. 『韓國思想과 文化』, 41: 333-358.
- 차옥승(1993). 노장사상(老莊思想)의 무위(無爲) 개념에 대한 연구. 『종교학연구』,

12: 85-103.

최오목(2010). 老子的 生命倫理思想 研究. 원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인터넷 네이버 종교학 대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cid=282&docId=630772&categoryId=282>, 2014.2.9.>

| | | | |
|-------|-------|----|-----|
| 논문투고일 | 2014년 | 2월 | 15일 |
| 심사일 | | 2월 | 20일 |
| 심사완료일 | | 3월 | 4일 |

A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the View of 'Nature' presented by Lao-tzu and the Aesthetics of Dance

- On the Jinju Gyobang Gudgeori chum of Kim Suak -

Sohn, In-young

Lecturer in dance, Kyung Hee University

This thesis aims to study the correlation between Lao-tzu's view of nature and the aesthetic consciousness of Korean dance and hence to look at how an idea is expressed in the aesthetic consciousness of dance in Korea. Lao-tzu's naturalism is deeply rooted in the basic culture of Korean people. Lao-tzu's philosophy is widespread in both the culture and art of Korea, and 'natural beauty' is an essential concept that cannot be forgotten in a discussion about the beauty of Korea. 'Natural beauty' is one of the most frequently discussed aesthetic concepts and constitutes an essential part of Korean dance.

The meaning of 'Nature', which constitutes an important part of the philosophy of Lao-tzu, is looked at in 3 ways. First, the circularity of nature, which begins from birth and ends with death. Second, the naturality of nature, which doesn't require any artificiality. Third, the curative power of nature, which enables natural healing in emptiness. This thesis looks at how the naturalism of Lao-tzu is realized and expressed in the life and the dance of master dancer Kim Suak. Through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even though Kim Suak didn't fully understand the philosophy of Lao-tzu, she had the moves of a master dancer who is attuned to the philosophy of 'Tao' based on her inherited and internalized talents for the sound and dance of ancient times.

In the following part, how the philosophy of Lao-tzu is reflected in Korean dance is looked into under the categories of: the dance of circularity, the dance of softness, and the dance of emptiness.

1. Dance of Circularity: The thesis finds that the moves and the structure of Korean dance show that the circularity of dance with curves is widespread

in Korean dance, and that the true values of the circularity are best reflected in the 'hwi-young-cheong (glorious)' dance or the 'hol-mok (wrist)' dance of Jinju Gyobang Gudgeori chum of Kim Suak.

2. Dance of Softness: The thesis finds that dance with soft moves reminiscent of willow trees swaying in the wind is possible only from time and years of experience, and that the composure enabled by the richness and accumulation of time can make the dance special. The Jinju Gyobang Gudgeori chum of Kim Suak has many lines that flow like water and has a softness which appears as though she is dancing in a vacuum.
3. Dance of Emptiness: The thesis finds that the slow and relaxing Gudgeori music and Korean traditional dance which naturally accompany the pace of breathing have an effect of art therapy. The Gudgeori chum of master dancer Kim Suak is relaxing, romantic and exciting, especially when performed in a quiet pavilion while looking down on the wide ocean with arms wide open and making a smooth turn. Therefore, the dance of Kim Suak was found to give much joy to and have a curative effect on the body and mind of both the dancer and the audience.

keywords: Lao-tzu(노자), Nature, Aesthetics of Korean Dance(한국춤의 미), Kim Suak(김수악), Jinju Gyobang Gudgeori chum(진주교방 굿거리춤).